

잡아함26 선설법경

날짜: 11월 19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85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쭙었다.

“세존께서는 법사(法師)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를 법사라고 합니까?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지금 여래가 말한 법사(法師)의 뜻을 알고싶으냐?”

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만일 색에 대해서 ‘싫어하고 욕심을 떠나서 모든 번뇌가 다해 걱정한 법에 머무른다고’고 설명한다면 이런 이를 이름하여 법사라 하며, 만일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‘싫어하고 욕심을 떠나서 모든 번뇌가 다해 걱정한 법에 머무른다고’고 설명한다면 이런 이를 이름하여 법사라 하느니라. 이런 이가 여래가 말하는 법사니라.”

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
물러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